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머리 맞대'

전주시의회, 개정 관련 2차 토론회 가져... '용적률 상향 쟁점과 대안 모색' 주제로 각계 전문가 참여

전주시의회가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관련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3일 5층 소회의실에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관련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선전 의원)와 김성규(호자2·3·4동), 최명권(송천1동)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용적률 상향 쟁점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3일 5층 소회의실에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관련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계획 협의회 위원장인 박정원 도시계획기술사의 '용도지역을 고려한 용적률의 합리적 조정 및 운영방안'과 전북건축사회 조영수 법제위원장의 '전북건축사회 조영수 법제위원장의 쟁점과 방향'이란 주제발표로 시작했다.

박정원 도시계획기술사는 "전주시의 현행 건축물 용적률을 봤을 때 개정안은 공동주택 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일괄적인 용적률 상향의 부작용과 우려를 고려했을 때 지역에 따른 차등 적용,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활용 등의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영수 전라북도 건축사회 법제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업지역의 조건 없는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며 "용도용적제를 굳이 신설한다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일반상업지역 기준 700~900% 적용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김남규 참여자치전문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일률적인 용적률 상향은 중심상업지역 주거시설 증대로 일부 개발업체에게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며 "노후 주택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면 도시관리계획, 인센티브 등을 활용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인순 공간사회가는 "용도용적제를

최초 도입한 서울수도 현재는 용도지역제를 넘어 업무, 주거, 상업, 녹지 등 다양한 용도를 함께 적용하는 '비온드조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적률 상향이나 비온드조닝 도입 검토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선희 유창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장은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중 82.3%가 20년 이상 노후단지로서 주거환경의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용도용적제는 상가 공실률을 더욱 키울 뿐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 도입 등 대안으로 지역건설업체 정비사업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규, 최명권 의원은 "지난 토론회에 이어 대안을 모색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면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약속했다.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도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전주시의 희망찬 미래를 담은 조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가정 밖 청소년 지원정책 내실화 촉구

이보순 전주시의원, 쉼터 운영·체계적 자립지원 제안

이보순 전주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과 보호를 위해 청소년 쉼터 운영, 청소년 자립 지원정책 등에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되고 있지만 일시 쉼터와 여자 중장기쉼터가 없어 적절한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청소년 쉼터 운영의 내실화와 주기적인 실태조사 시행, 자립을 위한 지원정책 확대, 플랫폼과 지역사회 지원체계의 효과적 활용 등 전주시 가정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내실화를 촉구했다.

특히 일시 쉼터와 여자 청소년들을 위한 여자 중장기쉼터의 설치와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와 전주시 맞춤형 자립 지원수당 규정의 완화를 통하여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전주시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고 자립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며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사회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 밖 청소년 지원정책 내실화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5분 발언을 종료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열린교육바우처 사업 '순항'

올해 지원 대상 240명→480명 두 배 확대 지원

전주시가 교육복지구현을 위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원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하는 열린교육바우처 사업이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6월 중 전주시 열린교육바우처 사업의 수강학생 변동사항과 애로사항 청취 등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대상 학생과 학부모가 높은 이용률과 만족도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열린교육바우처 사업은 시가 교육복지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매월 학원 수강료(초등 7만 5000원, 중등 8만 5000원)와 교재비(2만원)를 지원한다.

특히 시는 올해 지원 대상을 기존 240명에서 480명으로 두 배 늘려 지원

하고 있다. 올해 초 실시한 참여 학생 모집에도 대상 인원이 두 배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 인원이 초과되기도 했다.

시는 열린교육바우처 사업 대상자의 타 시·군 진출 또는 수급 자격 변동 등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추가 지원 후보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 학생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돕는 '소담콘서트' 개최

전주시는 디지털전환에 대한 소상공인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온라인 시장 진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디지털전환의 선구자와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디지털전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트렌드 강연회 '소담콘서트'가 지난 23일 전주더메이호텔에서 열렸다.



전주시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주최하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주MBC가 주관한 이번 강연회는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소상공인 온라인진출 및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소개에 이어, 온라인 유통플랫폼 전문가의 강연과 소상공인 온라인 사업 성공사례 발표 등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전문가 강연에는 먼저 네이버쇼핑과 이브 1호 소호스트인 '리코'가 강사로 나서 '라이브커머스의 A부터 Z까지'를 주제로 라이브커머스 시장진출과 판매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어 온라인 구독플랫폼인 오아시스 의 이수희 이사가 '구독경제 온라인플

랫폼 유통 흐름'을 주제로 구독경제의 성장 배경과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온라인 구독 서비스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독상품 우수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온라인을 통해 이끼(테라리움)를 판매해 연매출 15억 원을 달성한 플레트의 김창훈 대표와 배우에서 육가공 업체의 대표로 제2의 인생을 개척한 윤용현 도가농장 대표가 각각 온라인 판로 개척 과정과 성공기를 공유해 참석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나이가 갈 길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소상공인의 디지털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번 강연회가 소상공인의 디지털역량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진출을 위한 양분이 되어 강한 경제 전주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지역 복지관들과 치매관리 강화 '맞손'

전주시가 시민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치매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 복지관들과 손을 맞잡았다.

시는 지난 23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연합회(6개소), 노인복지관 연합회(7개소)와 치매관리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최근 치매환자수 증가에 따른 치매관리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질

높은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에 앞장서기 위해 지역사회 복지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시와 지역 복지관들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상호협력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 △치매조기발견 △치매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시는 치매파트너 교육이 마무리되면 전체 복지관을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기로 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신신협, '우리동네 어부바' 운영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유현숙)는 오는 10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서신신협(이사장 한병훈)과 함께 저소득 취약 가정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어부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서신신협이 전국 신협 사회공헌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는 이 프로그램은 △부모-자녀 마음을 이어주는 양육자 교육 프로그램 △아동 발달 및 오감 체험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1박 2일 가족 캠프 △지역사회 독거어르신을 위한 나눔 활동 등 다양한 가족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현숙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신협 지역사회공헌지원사업에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선정돼 사례관리 중인 취약가족의 가족관계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